

## 금산전통인삼농업 세계농업유산 모니터링 결과 대응 연구

유 학 열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 연구위원  
hyyou@cni.re.kr

이 연구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한 금산전통인삼농업 세계농업유산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금산군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CONTENTS

1. 연구 개요
2. 모니터링 결과와 문제점 도출
3.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 요약

- 이 연구는 2018년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금산인삼전통농업에 대한 1차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농업유산지역 모니터링이란 농업유산의 보전상태, 유지관리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분석하여 운영 주체에 대해 경고, 충고,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금산전통인삼농업 세계농업유산 지역 모니터링은 크게 운영체계 부문(관리주체, 관리체계, 관리계획 등), 보전부문(전통농업, 생물다양성, 경관 등), 활용부문(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 3가지 측면에서 실시됨
- 모니터링 결과 분석에서 도출된 주요 문제점으로는 농업유산 주민협의체 활동 실적 저조, 농업유산 보전, 관리를 위한 조례 미제정, 생물다양성 및 경관 조사 미흡 등이 지적되었음
-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① 세계농업유산 주민협의회 확대 재편, ② 세계농업유산 자문위원회 설치, ③ 세계농업유산 지역 보전, 관리,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 ④ 세계농업유산 지역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전 대책 마련, ⑤ 세계농업유산 브랜드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하였음

# 01 연구 개요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 연구 필요성

- 2018년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된 금산전통인삼농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관리,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한 정기적 점검이 필요함. 더불어 농업유산 등재 이후 해당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연계하여 지정된 농업유산의 보전과 전승, 활용을 위한 지속적 관리도 매우 중요함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유산의 보전, 관리, 활용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을 도입하였으며, 2018년부터 매년 2개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해 오고 있음
- 금산전통인삼농업의 경우 2019년에 제1차 모니터링이 실시되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분석하여 2021년 실시 예정인 제2차 모니터링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 ● 연구 목적

- 본 연구 목적은 2019년에 실시된 금산전통인삼농업 세계농업유산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금산군 및 관련 기관(조직)들의 향후 대응 방안을 제시함에 있음
- 특히, 모니터링 항목 가운데 매우 중요한 금산전통인삼농업시스템의 보전, 관리, 활용 부문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하고자 함

## 2. 금산 세계농업유산 모니터링 개요

### ●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기간: 2019년 06월 ~ 12월
- 모니터링 실시 기관: (사) 한국농어촌유산학회<sup>1)</sup>

### ● 모니터링 주요 내용

- 금산전통인삼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가치조사
- 금산전통인삼농업 모니터링: 농업유산 운영체계, 농업유산 보전관리, 농업유산 활용 등
- 금산전통인삼농업시스템 영상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금산전통인삼농업시스템 보전, 관리, 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제시



〈그림 1〉 금산전통인삼농업유산 모니터링 개요

1) 사단법인 한국농어촌유산학회는 2013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단체로서 농업유산 후보 자원 발굴과 국가 및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해 오고 있음

## 02 모니터링 결과와 문제점 도출

### 1. 운영체계 부문 모니터링

#### ● 관리주체 형성 부문

- 금산군의 경우 다른 농업유산(국가 또는 세계농업유산)지역의 자치단체와는 달리 농업유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음. 이 점은 매우 바람직한 대응이라 할 수 있음
- 인삼약초과 내 농업유산팀 편성하였으며 2명의 농업유산 전담 인력이 있음
- 농업유산 관련 주민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활동 실적이 거의 없거나 미흡하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2016년에 구성된 '농업유산 운영위원회'의 경우 활동 실적이 거의 없었음. 또한 '금산인삼농업 주민협의체'는 연 3회 모임을 갖고 전통인삼포 관리 등의 활동으로 최소한의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음
- 농업유산 관리 인력의 교육에 대해서는 관련 학술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봄

[표 1] 관리주체 형성 부문 모니터링 결과와 문제점

구분	결과	문제점
전담 인력 확보	- 2018년~2019년 7월 세계농업유산 사업단으로 운영(5명) - 2019년 7월 이후 인삼약초과 농업유산팀으로 재편성(2명)	- 특별한 문제점 없음
농업유산 주민조직 운영	- 농업유산운영위원회 활동 실적 거의 없음 - 주민협의체 정기적 모임	- 농업유산운영위원회 전면적 개편과 운영방안에 대한 재논의 필요 - 주민협의체 구성원 교체와 확대 필요
관리 인력 교육	- 동북아농업유산 컨퍼런스 매년 참가	- 전담인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 교육 필요

#### ● 관리체계 부문

- 금산 농업유산지역 관리를 위한 조례나 규약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약함
- 201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으나, 농업유산지역의 관리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농업유산 관련 다양한 데이터는 수집하였으나,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표 2] 관리체계 부문 모니터링 결과와 문제점

구분	결과	문제점
제도적 장치	-농업유산지역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약함	-자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함(충청남도 조례)
D/B 구축	-전통인삼 재배현황 경관 등 농업유산 관련 데이터 수집(화성)	-향후 정기적 D/B구축 필요 -수집된 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 필요
모니터링 결과 환류	-이전에 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이 없기에 해당 상황 없음	

#### ● 관리계획 수립 부문

- 관리계획의 핵심인 중장기 관리계획은 2015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후 2022년까지 계획 기간을 설정 계획을 수립함
- 이후, 2018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업유산의 지정 범위 등이 변경되었기에 앞서 수립된 중장기 관리계획의 수정 보완 차원으로 2019년에 '금산전통인삼농업의 보전 및 활용' 계획 수립함(2019년~2023년, 5개년 계획)
- 농업유산 관련 예산 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사업' 등의 국비 확보는 물론 '경쟁력 있는 금산인삼 인프라 구축' 사업 등 다양한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2015년~2019년 5개년 동안 농업유산과 직접 관련된 예산이 약 1,500백만원임

[표 3] 관리계획 수립 부문 모니터링 결과와 문제점

구분	결과	문제점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 2차례에 걸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발전계획에 대한 환류시스템 구축 필요
예산 확보	- 국비, 지방비 등 적절한 예산 확보	-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신규 예산 확보 필요

## 2. 보전 부문 모니터링

### ● 전통농업 부문

- 금산 세계농업유산의 주 작물인 인삼의 재배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에 관한 통계 구축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
- 금산전통인삼농업의 전통농업시스템(기술) 유지 측면에서는 금산 인삼연구회가 주축이 되어 전통농업기술에 대한 교육 이수 및 정보 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금산전통인삼농업에 대한 교육 교재 개발이 필요함
- 농업유산의 복원과 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방식의 인삼포를 조성해 놓았으나, 조성 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장기적 관점에서 농업유산 대상지(전통인삼재배지)의 훼손 실태, 예정지 확보 가능 여건 등 금산전통인삼농업의 위협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
- 전통인삼농법에 대한 전통지식 전승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3회 실시해 옴
- 전통인삼농법을 후세에게 계승하기 위한 장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미흡한 상태

[표 4] 전통농업 부문 모니터링 결과와 문제점

구분	결과	문제점
전통인삼 재배현황 점검	- 관련 기초통계자료 매년 구축	- 특별한 문제 없음
농업유산 복원과 정비	- 전통방식의 인삼재배포 조성	- 전통인삼포의 지속적 확대 및 관리 필요
농업유산 위협요소 점검	- 위협요소 점검에 대한 활동 미흡	- 보다 체계적인 점검 체계 구축 필요
전통지식 전승 교육	- 매년 정기적 실시	- 전승 교육의 내실화 필요
전통농법 장인 양성	- 장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도 없음	- 전통인삼농법 장인 양성 프로그램 구축 필요

### ● 생태 부문

- 국가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을 위해 2회(2015년, 2017년) 인삼재배지와 그 주변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조사를 실시함. 단, 식물의 종다양성, 출현식물 조사 등 식물상 조사에 국한됨
- 전통인삼재배지 생태환경조사 또한 농업유산 지정 신청을 위해 실시한 것이 유일함. 그 이후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생태환경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 5] 생태 부문 모니터링 결과와 문제점

구분	결과	문제점
생물다양성 조사	- 2회 식물 생물다양성 조사 실시	- 식물상외 다른 생물다양성 조사 필요
생태환경 조사	- 생태환경 조사 실시	-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생태환경 조사 필요

### ● 경관 부문

- 인공위성 촬영 사진에 의한 인삼재배지와 주변 토지이용 변화를 관찰한 적은 있지만, 경관 조망점을 설정하여 정기적 경관 변화 조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음. 일부 전통인삼재배지를 대상으로 드론촬영에 의한 경관 특성 분석은 실시함
- 다수의 경관 조망점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경관 변화, 토지이용 변화 등의 모니터링 필요

[표 6] 경관 부문 모니터링 결과와 문제점

구분	결과	문제점
경관 변화 조사	- 일화성 경관 특징 분석 실시	- 경관 조망점 설정 필요 - 정기적, 지속적 경관 변화 조사 필요

### ● 전통문화 부문

- 인삼과 관련된 전통문화의 활동 내용과 보전 여부를 농업유산 신청서 작성 시 조사하였으며, 2019년 모니터링 시 보완 조사가 이루어짐
- 전통문화 교육 실태와 보전 관련 행사의 추진 여부 관찰해 옴

[표 7] 전통문화 부문 모니터링 결과와 문제점

구분	결과	문제점
전통문화 실태 분석	- 기존의 전통문화 실태 조사	- 삼장제처럼 전통인삼농업과 관련된 전통문화의 확대 보급 실시 필요
전통문화 보전 행사	- 기존의 전통문화 보전 행사 조사	- 특별한 문제점 없음

### 3. 활용 부문 모니터링<sup>2)</sup>

#### ● 경제적 효과 부문

- 관련 상품개발로는 인삼을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인삼엑스포 기간에 활용함. 또한 2019년에는 NH농협 여행상품으로 출시됨. 하지만 일회성 행사로 머물러 있음
- 농업유산과 관련 된 국내의 교류로서는 2016년 동북아농업유산 국제컨퍼런스를 금산에서 개최하였으며, 한중일 순회로 열리는 동북아농업유산 국제컨퍼런스에 매년 참가하고 있음. 또한 2019년 국가농업유산 등재 지역 간의 행정협의회에 회원자격으로 참여함
- 관광프로그램에 주민참여로서는 매년 열리는 금산인삼축제 기간에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있으며, 2019년부터는 농업유산 전문 해설사로서 지역주민 7명이 활동하고 있음

[표 8] 경제적 효과 부문 모니터링 결과와 문제점

구분	결과	문제점
관련 상품 개발	체험프로그램, 관광상품 개발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회성 행사로 그침
농업유산 교류 프로그램	동북아농업유산 국제컨퍼런스 개최 및 참가 국가농업유산 지역 간 교류	국가농업유산 지역 간 상생협력협약 이후 실질적 교류활동 없음
관광프로그램 주민참여	금산인삼축제 기간 자원봉사 농업유산 전문 해설사 활동	농업유산 전문 해설사의 질적 양적 확대 필요

#### ● 사회문화적 효과 부문

- 각종 매체를 통한 농업유산 홍보활동 지속적 추진. 특히 ‘금산인삼청소년 UCC영화제’, 방송 광고, 다큐멘터리 제작은 홍보 효과가 크다고 봄
- 하지만, 대형 조형물, 기념비, 홍보스티커에 의한 홍보는 금산군에 찾아오는 방문객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그 파급력은 그다지 높지 않음. 서울 등 대도시에서 홍보물 설치 등의 새로운 전략이 요구됨
- 농업유산 관련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금산인삼연구회 활동은 정기적으로 활발히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농업유산 주민협의체의 경우에는 수동적인 교육에 참석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음. 향후 농업유산 주민협의체의 구성원 확대와 함께 주민협의체의 기능 재편 강화에 행정적 관심이 필요

[표 9] 사회문화적 효과 부문 모니터링 결과와 문제점

구분	결과	문제점
농업유산 홍보 활동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 홍보활동을 하고 있음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금산지역 외에서의 홍보 전략 마련 필요
주민역량 강화	농업유산 주민협의체의 활동 마비	농업유산 주민협의체의 구성원 확대 및 기능 강화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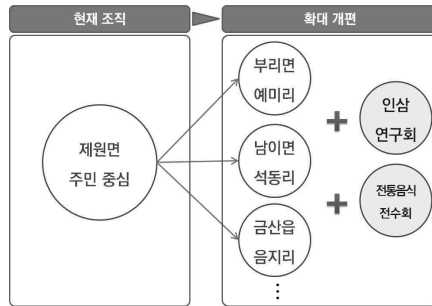
2) 활용부문 모니터링 항목에 환경적 효과 부문이 포함되어 있지만, 2018년 세계농업유산 지정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실질적 모니터링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생략하기로 함

## 03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 1. 운영체계 부문 개선 방안

#### ● 금산전통인삼농업 세계농업유산 주민협의회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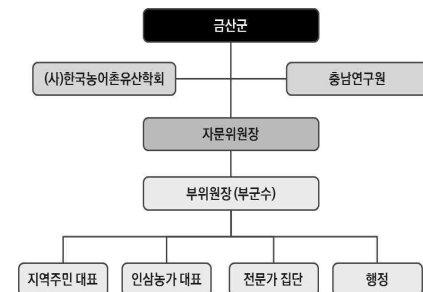
- 현재 제원면 중심의 인삼농가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협의회의 확대 개편 필요
- 금산군 10개 읍면 모두 참여하는 방안으로 검토 필요(읍면별 1~2명)
- 10개 읍면별 참여와 더불어 금산인삼연구회, 금산 전통음식전수회의 회원도 참여할 수 방안 마련 필요
- 추진 시기: 2020년 하반기



〈그림 2〉 주민협의체 확대 개편안

#### ● 농업유산 자문위원회 구성

- 국가 및 세계농업유산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체계적이며 실효성 높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자문이 필요함. 이를 위해 가칭 ‘금산 농업유산 자문위원회’를 구성
- 자문위원회 구성은 지역주민 대표, 전통인삼재배농가 대표, 농업유산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10명 내외로 구성



〈그림 3〉 금산 농업유산 자문위원회 조직도(안)

-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자문기관으로 (사)한국농어촌유산학회, 충남연구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농업유산 지역의 보전, 관리, 활용 관련 사업 또는 정책에 대한 자문
- 추진 시기: 2020년 하반기

#### ● 세계농업유산 지역 보전, 관리,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

- 금산 세계농업유산지역의 체계적, 효율적, 지속적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
- 농업유산 지원정책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산군 조례 보다는 충청남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칭 ‘충청남도 농업유산지역 보전, 관리, 활용 조례’
- 추진방식으로는 금산군 지역구 도의원의 의원발의가 가장 적절함
- 추진 시기: 2021년 상반기

#### ● 금산전통인삼농업 관련 D/B 지속적 구축

-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세계농업식량기구(FAO)에 의한 세계농업유산지역 모니터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인삼농업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 지속적 수집,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전통인삼농업 현황 D/B 구축: 전통인삼재배지 면적, 농가수, 생산량 등
- 세계농업유산 지역 생태환경 조사: 농업생물다양성, 인삼종자의 자가채종 현황 등
-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세계농업유산지역 모니터링과 병행하여 실시
- 추진 시기: 2020년 하반기 계획수립, 2021년부터 시행

## 2. 보전 부문 개선 방안

### ● 금산 세계농업유산 지역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전 대책 마련

- 앞에서 제시한 '금산전통인삼농업 D/B 구축'과 병행하여,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
- 정기적 생물다양성 관찰 및 조사 실시: 생물다양성 기초적 관찰(금산 관내 초등학교), 전문적 생물다양성 조사(충부대학교, 충남연구원 등)
- 전통인삼재배지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 조망점을 5개소 이상 설정, 연 4회(계절별) 경관 변화 관찰 기록
- 추진 시기: 계획 수립(2020년), 시행(2021년부터)

### ● 삼장제 지원

- 금산전통인삼농업이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인삼농업의 풍원을 기원하는 '삼장제'라는 전통의식이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점임
- 하지만, 삼장제는 금산지역 전통인삼농업의 대표적 전통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러한 독창적 전통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전통인삼재배농가 또는 마을에 삼장제를 권고, 지원하여 계승될 수 있도록 유도
- 농촌진흥청 사업인 '농경문화 소득과 모델 구축 사업' 활용 검토
- 추진 시기: 2021년부터



삼장제 재연 모습

### ● 금산 세계농업유산 기록화 사업

- 금산전통인삼농업의 전통지식시스템, 인삼농업생태, 인삼농업경관, 인삼문화 등 세계농업유산으로서 인정 받은 가치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전할 필요 있음

- 금산 전통인삼농업의 세계적 우수성, 대표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이를 자료로 기록할 수 있는 아카이빙 구축
- 금산인삼농업시스템이 유산적 가치의 영구적 기록화: GIAHS신청서에 담긴 내용 영상화, 디지털화, 금산지역 전통인삼재배농법 정밀 조사, 인삼농업 관련 문화자원 기록
- 금산인삼농업유산 핵심가치별 정밀 기록과 아카이빙: 생물다양성, 경관요소 등
- 금산인삼농업의 세계농업유산 등재까지의 경위 기록화: 등재과정 기록
- 추진 시기: 2021년~2022년

## 3. 활용 부문 개선 방안

### ● 금산전통인삼농업 세계농업유산 브랜드 인증제 도입<sup>3)</sup>

-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전통인삼농업'의 세계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고, 타 지역·타 국가와는 차별화된 브랜드 인증을 통해 '금산전통인삼농업'의 가치 제고
- 또한 금산전통인삼의 세계적 전통성과 우수성을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금산군 기존 브랜드와의 차별화: 브랜드 파급력 확대, 인증 대상 확대, 브랜드 가치 확대, 브랜드 독점 가능



〈그림 4〉 금산 세계농업유산 브랜드의 차별성

3) 세계농업유산 브랜드 인증제 관련 연구는 금산군이 충남연구원에 위탁하여 추진중에 있음



## ● 세계농업유산 사진촬영 대회 및 사진전 개최

- 금산전통인삼농업의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진촬영 대회 및 사진전 개최를 둘 수 있음
- 사진촬영 대회는 금산전통인삼밭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매년 계절을 변경하여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어 2021년 봄, 2022년 여름, 2023년 가을, 2024년 겨울 순으로 개최하여 계절별 색다른 경관을 관찰하고 보존하는 의미가 있음
- 사진촬영 대회를 통해 금산군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사진들은 금산인삼축제 기간 전시, 인삼 홍보관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음



중국 운남성 세계농업유산지역 사진촬영 대회 및 사진전

## ● 세계농업유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금산전통인삼농업의 세계농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역 주민,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 또한 금산전통인삼농업시스템을 후세에게 계승하기 위해서는 농업유산 관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세계농업유산 교육 교재 개발: 만화형태, 영상자료, 원격교육 등 다양한 기법 활용
- 세계농업유산 교육 실시: 금산 관내 학교들과 연계하여 이론 교육과 방과 후 교실 실시



〈그림 5〉 제주 발담 교육교재 사례

## ● 금산 세계농업유산 테마공원 조성

-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전통인삼농업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필요

- 농업유산의 단순한 박제식 재현이 아니라 교육적, 관광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조성. 특히 세계농업유산 가치로서 높게 평가받은 예정지관리 기법, 개갑처리, 삼장제 등에 대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테마공원 주요 기능 및 시설 예시: 전통인삼밭, 인삼캐기 체험장, 예정지관리 체험장, 개갑처리 체험시설, 삼장제 재현 시설 등
- 추진 시기: 중장기 계획(2022년 이후)



제주 발담 세계농업유산 테마공원

## ● 농업유산 관련 국제 행사 개최

- 금산전통인삼농업유산의 국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국제 행사 추진
- 가칭 '세계농업유산 브랜드전' 개최: 세계농업유산 지역의 브랜드 제품 출품전
- 가칭 '금산 세계농업유산 국제 세미나' 개최: 매년, 또는 격년단위로 정기 학술 세미나 개최
- 추진 시기: '세계농업유산 브랜드전' 2022년부터, '금산 세계농업유산 국제 세미나' 2020년부터

## 참고자료

- 금산군. 2019. "금산 전통인삼농업 보전 활용 계획 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2019. "세계중요농업유산 금산 전통인삼농업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
- 유학열. 2018.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인정받은 금산전통인삼농업의 가치", 충남리포트 Vol. 319